

중앙승가대 이사 향적·지현·능도 스님 승가학원 이사회, 96차 회의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2일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연직 일반이사에 중앙승가대 이사장 자승, 기획실장 능도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임기 만료된 무상 스님은 이사에 재선임 됐으며, 감사에는 경륜 스님이 선출됐다.

또한 올해 중앙승가대 추가경정예산 3억 6천여만 원을 의결했으며, 현재 2학년 2학기인 전공 전환 시기를 3학년 1학기 기로 대학 현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간사명 이사에는 교육부장 법인, 호법부장 정안, 이사 해주 스님이 선임됐다. 신종일 기자

2013 한일대회 공주서 6월 17~ 20일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2013년 6월 17~ 20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12월 12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개최 일정과 사업계획 예산 안 등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앞으로 대회 주제를 일본 측과 상의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환수 사업 △제2차 대전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 봉환사업 △한일불교여성 교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새정부출범 법회 계획 12일 종단협 이사회서 결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이하 종단협) 2013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정기후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종단협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결의 위와 같은 내용들의 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이날 안건에는 △임원변경의 건 △불기 255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건 △제1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결과보고 건 △대북수해지원사업 진행현황 보고의 건 △신년하례법회 및 총회 일정의 건 등이 상정됐다. 정혜숙 기자

‘사찰의 맛’ 대중 알리기 본격화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우수 사찰 지원사업 1차 선정

식문화 위기 시대에 대안으로 손꼽히는 사찰음식의 대중화 사업이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찰음식 우수 사찰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는 관련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 이하 문화사업단)은 지난 10월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우수 사찰음식 행사 지원사업’을 공모해 최근 1차 선정을 마쳤다. 이름을 올린 사찰은 평택 수도사를 비롯해 총 12곳. 그 중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한 사찰 3곳을 제외하면 9곳이 앞으로 사업을 기획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9곳 집중 다양한 행사와 결합 ‘눈길’

대중화 위한 자력제 실시 특화사찰·나눔행사도 지속

이들 행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축제와 결합하거나 독특한 특화 콘텐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수도사의 경우 내년 3월 ‘한·중·일 사찰음식 대항연’을 개최한다. 한·중·일 불교의 전통 사찰음식을 시연, 전시하고 이를 통해 사찰음식의 주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화 전등사는 내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경내 일원에서 ‘사찰음식과 프랑스 요리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주제의 음식체험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음식체험 행사를

사찰명	일정	행사명	내용
수도사	2013년 3월 중	한중일 사찰음식대항연	한중일 사찰음식 강의(시연), 전시 지역인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템플라이프 사찰음식 경연대회/ 산사음악회
법주사	2013년 4월 20~30일	2013 충북 사찰음식문화대전	사찰음식 대전/ 법주사 사하촌 음식 페스티벌 문화유산 체험 활동
백련사	2013년 1월 25~27일	녹차와 사찰음식 행사	사찰음식 및 다도 강의 녹차음식과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용문사	2012년 11월~ 13년 5월	친환경농업박물관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이야기	사찰 새시공예 및 배부기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산나물 축제)
봉은사	2013년 3~4월	사찰음식 도시락 개발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경연대회 및 품평회, 전시회 진행 향후 도시락 상품 및 만들기 체험으로 개발
적지사	2013년 5월 중	사찰음식 사진전 및 전시회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사찰음식 사진 작품 전시
전등사	2013년 5월 3~5일	2013 전등사 사찰음식 대항연	한국, 프랑스 전통음식 전시 사찰음식과 프랑스 요리의 콜라보레이션
대승사	2013년 1~5월	대승사 사찰음식 대항연	다문화 가정 취업, 원장 만들기 장애인 학생, 외국인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문경 첫사랑 축제 사찰음식 시식 행사
덕림사	2013년 2~3월	도림 전통사찰음식 강좌 개설	한국, 프랑스 전통음식 전시 사찰음식 강의/ 사찰음식 체험 및 전시회(3월)

사는 △사찰음식과 와인 그리고 카나페 △사찰음식과 프랑스 자연 식단 △사찰음식의 응용 및 이주민 초청 자국음식 전시 등 매일 소주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삼광성 들기, 위령제, 곤약 대협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 중이다.

속리산 법주사는 내년 4월 20~30일 ‘2013 충북사찰음식문화대전’을, 양평 용문사는 내년 5월 양평군 산나물 축제에 맞춰 사찰음식 체험 및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 봉은사는 사찰음식을 도시락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준비 중이며, 대승사는 나눔을 주요 골자로 한 사찰음식행사를, 적지사는 사찰음식 사진전과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1차 서류 심사를 마치고 관련 대상 사찰에게 세부 사업

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사찰음식 우수 사찰 지원 사업을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5개 영역에 걸쳐 사찰음식을 세계화·대중화 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사찰음식 자력증 제도 신설 △특화 사찰지원 확대 △사찰음식 나눔행사 지속 △대중화 레시피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관계자는 “특화 사찰의 경우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상시 결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찰음식 나눔행사를 비롯해 사찰음식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법국인 캠페인도 새롭게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강정마을, 상처는 보듬고 아픔은 나누자”

법불교계, 13일 강정포구서 화합을 위한 용왕대제 봉행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양분된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주민을 화합하기 위한 용왕대제가 봉행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제주불교연합회(회장 성효)는 12월 13일 제주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마을 용왕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경전 속 사가족과 풀리아족 사이의 갈등을 소개하고 강정 마을이 원래의 모습을 찾기를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용왕대제는 어느 한 쪽을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강정마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 주민들이 보살의 얼굴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20여 차례 강정마을을 다녀가면서 이곳 찬반 주민 모두 예전처럼 이웃으로 형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용왕대제는 강정 마을이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마을 공동체로 태어나는 큰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발원문도 발표됐다. 제주불교연합회장 성효 스님은 강정평화기원발원문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둘러싸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돈독한 신심으로 물러나지 않고 큰 원력으로 진일보하여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그날까지 정진해나가지”고 기원했다.

글= 신종일 기자, 사진=조계종 기자단



조계종 자성과쇄선결사추진본부와 제주불교연합회는 12월 13일 제주 강정마을 포구에서 마을의 화합을 기원하는 용왕대제를 봉행했다.

“국방부 소속 지원단이 불법사찰 했다”

이용성 10.27 심의관, 국가 인권위에 부당 징계 진정

불교계에서 추천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심의 조사관을 국방부 소속 지원단이 불법사찰하고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성 조사심의회관은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심의관은 前 법난위원장인 영담 스님이 2010년 7월 임용,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이 씨는 “불교계에서 추천한 자신을 국방부 소속 지원단이 비밀리에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최동식 법난위 지원단장이 나를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성실, 복종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을 요

구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갑작스러운 조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이에 대해 시정 조치라도 있었을 것이다. 유일한 조계종 추천 인사인 나를 징계하는 의의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징계는 현 법난위원장인 지원 스님의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불차의원 모임 정각회(회장 정갑윤) 13명 의원들은 12월 13일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법 효력에 대한 시한 폐지 △가해 주체 국가로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정혜숙 기자

우리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심리 원리들을 쉽고, 빠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처음 만나는 심리학

-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소문만 듣고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왜일까?
-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시키면 “나도 짜장면!”을 외치는 이유는 뭐일까?
- 정말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을까?
- 왜 약자를 보면 돕고 싶을까?
- 사랑의 유효기간은 정말 3년을 못 넘길까?

사보 다쓰야·와타나베 요시유키 지음
김정원 옮김 | 김진주監주 | 308면 | 15,000원

하루에 30분 열흘이면 마스터하는 ‘심리’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불교의 핵심 교리는 마음 치유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가?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여는글) 중에서

치유하는 불교 읽기

사경 스님 지음
288면 | 14,000원

www.bulkwang.co.kr @bulkwang www.facebook.com/bulkwang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참회 수행법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본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피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봉 스님 지음
288면 | 13,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